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 년 2 월 23 일

회 사 명 :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권 오 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매탄동)
(전 화) 031-200-1114
(홈페이지) <http://www.samsung.com/sec>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경팀장 (성 명) 남 궁 범
(전 화) 031- 277-7225

목 차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1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3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4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5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6
나. 회사의 현황 -----	12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호 의안) 제 49기 (2017.1.1-2017.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23
1) 연결 재무제표 -----	24
2) 별도 재무제표 -----	85
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123
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28
4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변경의 건 -----	128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9기 정기)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인호 (출석률 100%)	김한중 (출석률 100%)	송광수 (출석률 100%)	이병기 (출석률 100%)	박재완 (출석률 88%)
			찬 반 여 부				
1차	'17.01.24	① 2016년(제4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②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③ 삼성디스플레이(주)와 패널 개발계약 체결의 건 ※ 보고사항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차	'17.02.24	① 제4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정의 건 ② 제48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 제1호: 제48기(2016.1.1~2016.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③ 대외 후원금 운영기준(案) ④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의 건 ※ 보고사항 ① 주주가치 제고 방안 진행현황 공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차	'17.03.24	① 이사 보수 책정의 건 ② 2017년 사회공헌기금 운영계획 승인의 건 ③ 국제기능올림픽 후원의 건 ※ 보고사항 ① 거버넌스위원회 설치·운영(안)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불참
		① 2017년(제49기) 1/4분기 재무제표, 분기보고서 및 3월 분기배당 승인의 건 ②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인호 (출석률 100%)	김한중 (출석률 100%)	송광수 (출석률 100%)	이병기 (출석률 100%)	박재완 (출석률 88%)
			찬 반 여부				
4차	'17.04.27	※ 보고사항 ① 지주회사 전환 검토 결과 ③ 보유 자기주식 소각의 건 ④ CSR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⑤ 사회공헌 기부금 출연의 건 ⑥ 삼성디스플레이(주)와 임대차계약 체결 및 폐기보상의 건 ⑦ 삼성디스플레이(주)와 개발 프로젝트 계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차	'17.06.12	① 삼성디스플레이(주)와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② 삼성디스플레이(주)와 검사설비 공급 거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차	'17.07.27	① 2017년(제49기) 상반기 재무제표, 반기보고서 및 6월 분기배당 승인의 건 ②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③ 손해보험 가입의 건 ④ 삼성디스플레이(주)와 패널 개발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차	'17.10.31	① 2017년(제49기) 3/4분기 재무제표, 분기보고서 및 9월 분기배당 승인의 건 ②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③ '18~20년 주주환원 정책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차	'17.11.24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② 퇴직연금 불입의 건 ③ 포항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출연의 건 ④ 희망2018나눔캠페인 기부금 출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 위원회	이인호 (위원장)	'17.01.23	- 제4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201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016년 4/4분기 비감사업무 수행 검토 보고	- - -
		김한중	- 2016년 감사팀 감사실적 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계획 보고	- -
	송광수	'17.02.22	-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가결
	'17.02.24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 심의 - 2016년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보고	- -	
	'17.04.26	- 제49기 1/4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 2017년 1/4분기 비감사업무 수행 검토 보고 - 2017년 1/4분기 대외 후원금 현황 보고	- - -	
	'17.07.26	- 제49기 상반기 재무제표 및 반기보고서 보고 - 2017년 2/4분기 비감사업무 수행 검토 보고 - 2017년 2/4분기 대외 후원금 현황 보고 - 2017년 상반기 감사실적 보고	- - - -	
	'17.10.30	- 제 49기 3/4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 2017년 3/4분기 비감사업무 수행 검토 보고 - 2017년 3/4분기 대외 후원금 현황 보고	- - -	
내부 거래 위원회	이인호 (위원장)	'17.01.23	- '16년 4/4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
		'17.02.22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의 건	-
	김한중	'17.04.26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사회공헌 기부금 출연의 건 2) 삼성디스플레이(주) 임대차계약 체결 및 폐기보상의 건 - '17년 1/4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 - -
		'17.06.12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삼성디스플레이(주)와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
	송광수	'17.07.26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손해보험 가입의 건 - '17년 2/4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 -
		'17.10.30	- '17년 3/4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
		'17.11.24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2018년 대규모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2) 퇴직연금 불입의 건	-
보상 위원회	송광수 (위원장) 이인호 이병기	'17.02.22	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2017년 이사보수한도 심의의 건	가결 가결
거버넌스 위원회	이병기 (위원장) 이인호 김한중 송광수	'17.02.24	※ 보고사항 ① 2017년 1분기 CSR리스크관리협의회 결과 보고의 건	-
		'17.04.27	※ 보고사항 ① IR동향 보고의 건 ② 2017년 2분기 CSR리스크관리협의회 결과 보고의 건	- -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박재완	'17.06.12	① 기업지배구조현장 제정 검토의 건 ② 거버넌스위원회 운영 검토의 건	가결 가결
		'17.07.27	※ 보고사항 ① IR동향 보고의 건 ② 2017년 3분기 CSR리스크관리협의회 결과 보고의 건	- -
		'17.10.31	① '18~'20년 주주환원 정책 심의의 건 ※ 보고사항 ① 2017년 4분기 CSR리스크관리협의회 결과 보고의 건	가결 -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김한중 (위원장) 이병기 박재완 권오현	미개최		

※ 위원회 구성원 현황은 2017년말 현재 기준입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5	55,000	409	82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4명을 포함한 등기이사 총 9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해외법인)	HHP 및 가전제품 매출입 등	2017.01~2017.12	274,209	20.5%
Samsung Semiconductor, Inc.(해외법인)	반도체 매출입 등	2017.01~2017.12	251,917	18.8%
Samsung Electronics Vietnam THANGUYEN Co., Ltd.(해외법인)	HHP 매출입 등	2017.01~2017.12	187,753	14.0%
Shanghai Samsung Semiconductor Co., Ltd.(해외법인)	반도체 매출 등	2017.01~2017.12	171,760	12.8%
Samsung Electronics Vietnam Co., Ltd.(해외법인)	HHP 및 가전제품 매출입 등	2017.01~2017.12	130,229	9.7%
Samsung Electronics Huizhou Co., Ltd.(해외법인)	HHP 및 TV 매출입 등	2017.01~2017.12	124,660	9.3%
Samsung International, Inc.(해외법인)	TV 매출입 등	2017.01~2017.12	68,965	5.1%

※ 비율은 2016년도 별도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당사는 본사를 거점으로 한국 및 CE, IM 부문 산하 해외 9개 지역총괄과 DS 부문 산하 해외 5개 지역총괄의 생산·판매법인, Harman 산하 종속회사 등 270개의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 전자 기업입니다.

사업군별로 보면 Set 사업에서는 TV를 비롯하여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CE 부문과 스마트폰 등 HHP, 네트워크시스템, 컴퓨터 등을 생산/판매하는 IM 부문이 있습니다. 부품사업에서는 DRAM, NAND Flash, 모바일AP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있는 반도체 사업과 TV, 모니터, 노트북 PC, 모바일용 등의 TFT-LCD 및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DP 사업의 DS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상반기 중 신규로 인수한 Harman 부문에서 Headunits, 인포테인먼트, 텔레메틱스, 스피커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주요 제품]

부문		주요 제품
CE 부문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의료기기 등
IM 부문		HHP, 네트워크시스템, 컴퓨터 등
DS 부문	반도체 사업부문	DRAM, NAND Flash, 모바일AP 등
	DP 사업부문	TFT-LCD, OLED 등
Harman 부문		Headunits, 인포테인먼트, 텔레메틱스, 스피커 등

지역별로 보면 국내에는 CE, IM 부문 및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본사와 22개의 종속기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수원사업장(CE 부문 및 R&D 센터 등)과 구미사업장(IM 부문), 기흥사업장(반도체 사업), 화성사업장(반도체 사업), 평택사업장(반도체 사업), 광주사업장(생활가전 사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국내 종속기업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삼성디스플레이와 국내 대리점 판매를 전담하는 삼성전자판매, 제품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및 제품의 운송을 담당하는 삼성전자로지텍 등 총 22개의 비상장 종속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는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생산, 판매, 연구활동을 담당하는 248개의 해외 종속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주는 TV, HHP 등 Set제품의 미국 판매를 담당하는 SEA(뉴저지, 미국), TV 생산을 담당하는 SAMEX(티후아나, 멕시코), 반도체 제조를 담당하는 SAS(오스틴, 미국) 및 Harman 등을 포함하여 총 63개의 생산, 판매 등을 담당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유럽은 영국내 Set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SEUK(영국)와 SEF(프랑스), SEG(독일), SEI(이탈리아) 등의 판매법인이 있으며, 유럽내 TV 생산을 담당하는 SESK(슬로바키아), SEH(헝가리) 및 냉장고 등 가전생산을 담당하는 SEPM(폴란드) 등의 생산법인 등을 포함하여 총 79개의 법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SAPL(싱가폴)을 중심으로 SEAU(호주), SEPCO(필리핀), SME(말레이시아) 등 판매법인 및 HHP 생산법인 SEV·SEVT(베트남), TV 등 생산법인 SEHC(베트남), TV·HHP 등 복합 생산법인 SIEL(인도) 등을 포함하여 총 38개의 법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내 Set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SCIC(북경), SEHK(홍콩) 등의 판매법인과 Set 제품의 생산, 반도체 및 DP의 임가공을 담당하는 천진지역, 소주지역 등의 생산법인(TSTC, SSEC, SESS 등)을 포함하여 총 38개의 법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CIS에서는 생산, 판매 등을 담당하는 30개 법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CE 부문]

(산업의 특성 등)

TV산업은 1926년 흑백 TV 개발, 1954년 RCA사가 Color TV(21") 양산/판매를 시작한 이래로 트리니트론 브라운관(1967년), 완전평면 브라운관(1996년) 개발 등 기술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주요 국가 보급률이 90%를 넘어서면서 브라운관 TV 사업의 성장은 정체되었습니다. 그러나 Flat Panel TV(LCD, PDP) 출시, 디지털 방송 확산(영/미 1998년~)을 통해 TV 시장은 성장 모멘텀을 되찾았으며, FPTV는 화질, 디자인 등 제품 성능 향상과 지속적인 Set가격 하락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며 기존 CRT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3D TV가 출시되었고,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OVER-THE-TOP) 업체들의 부상과 스마트기기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 확대로 스마트 TV 시장이 태동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화질 및 해상도가 혁신적으로 높아진 UHD TV, 2014년에는 새로운 Form Factor인 Curved TV가 출시되었으며 2015년에는 퀴텀닷TV가 상용화되는 등 TV 시장은 끊임 없이 진화하였습니다.

2016년 전체 TV 수요는 전년비 약 1.5% 하락한 2억 2,270만대로, 시장내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LCD TV(LED TV 포함)가 전년비 1.3% 하락한 2억 2,150만대, OLED 70만대, CRT 약 50만대 등이었으며, 2017년도 전체 TV 수요는 전년과 유사한 2억 2,190만대 수준으로, LCD-TV가 2억 2천만대로 99% 이상의 비중을 지속 이어 나갔으며, OLED 수요는 138만대로 전년대비 성장하였으나 비중은 0.6%로 미미하였습니다. 2018년도 전체 TV 수요는 성장세로 돌아서서 2억 2,700만대 이상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5% 초반 수준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시장의 고해상도 대형화면에 대한 Needs도 지속 증가하여, UHD TV는 전년비 25% 가까이 증가한 1억대로 TV수요 중 비중이 44% 수준이 될 전망이며, 60"이상 초대형 TV도 전년비 20% 이상 성장한 약 19백만대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는 선진 시장보다는 성장시장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중심으로 5% 이상 성장하며 시장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M 부문]

(산업의 특성 등)

휴대폰 보급률은 2017년 77% 수준에서 2018년은 7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8.2월 Strategy Analytics)

휴대폰 산업은 1980년대 초 1세대 아날로그 방식으로 시작하여 2세대 디지털 방식을 거쳐, WCDMA와 같은 3세대 이동통신이 보편화 되었으며, 대용량 데이터의 초고속 전송이 가능한 4세대 LTE 서비스가 글로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기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도 상용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중심으로의 시장 변화에 따라 고성능 AP, AMOLED Display, 고화질 카메라, 센서, 방수·방진과 같은 Hardware 뿐만 아니라 Application, UX, Mobile Payment, AI, AR 등의 Software와 서비스 경쟁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DS 부문]

- 반도체 사업부문

(산업의 특성 등)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연산과 추론 등 논리적인 정보처리 기능을 하는 System LSI(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읽고(Read) 쓸 수(Write)있는 램(RAM)제품과 읽기만 할 수 있는 롬(ROM)제품으로 구분됩니다. 램(RAM)은 전원이 꺼지면 기억된 내용은 지워져 휘발성메모리(Volatile Memory)라고 하며, 컴퓨터의 주기억장치, 응용프로그램의 일시적 로딩>Loading), 데이터의 일시적 저장 등에 사용됩니다. System LSI 제품은 응용처 등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며 가장 규모가 큰 것이 PC 및 모바일 기기, Server 등의 중앙처리장치인 CPU(Central Processing Unit)이고 가전, 네트워크,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향 AP제품과 이미지 센서, 기타 주문형 반도체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을 저하 및 태블릿 시장 역성장 등 모바일 기기의 수요 감소로 성장을 감소의 요인이 있으나, 서버 등 정보 저장 기기의 고용량화로 메모리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Automotive 등 신규 시장이 창출되어 향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 기반 또한 다변화되어 공급의 변동은 과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DP 사업부문

(산업의 특성 등)

디스플레이는 각종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화면표시장치를 지칭합니다. 표시방식 측면에서 표시소자가 능동적으로 구동되는(Active Matrix) 방식이 주류이며,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와 TFT-LCD(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가 이에 해당합니다.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질을 이용한 화면표시장치로, 명암비와 색일치율이 높고 색 재현 범위가 넓으며 응답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인터넷 사용 등 디스플레이의 성능이 중시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별화 요소로 작용하여 10인치 이하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의 채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TFT-LCD는 액정을 이용한 화면표시장치로서, 가볍고 얇으면서도 높은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어, 휴대성이 강조되는 휴대전화에서부터 높은 해상도와 밝기를 요구하는 대형 TV까지 응용처가 매우 다양합니다. 대형 TFT-LCD 산업은 노트북을 시작으로 모니터, TV 순서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여 왔으나, 보급률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성장률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LED와 TFT-LCD 사업은 기술 및 자본 집약적 특성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대규모 생산이 필요한 바, 진입장벽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장치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생산업체간 경쟁적 설비 투자로 수요 공급 불균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는 패널 판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반대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Harman 부문]

(산업의 특성 등)

2018년에는 전장부품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자동차 Global 생산량이 약 1% 증가 예상되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 JD Power Global Production, 2017.12월)

최근 수년간 자동차 산업 내에서 Connectivity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해 왔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공유 모빌리티를 두 축으로 기술 발전의 선두에 서는 것을 지향하면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페셔널/소비자 오디오 산업(커넥티드 홈, 헤드폰, 스마트 오디오 등) 중 소비자 오디오는 약 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출처 : Futuresource, 2017.10월), 프로페셔널 오디오는 약 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출처 : Stiernberg Consulting, 2017.6월)

커넥티드 홈과 스마트 오디오에서의 기술혁신 결과로 산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해왔으며, 세계적인 성장 기조 속에 이 분야의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수요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CE 부문]

(국내외 시장여건 등)

TV시장의 Mega Trend인 대형화/고화질화가 Device간, 업체간 경쟁 격화에 따라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제품력, 브랜드파워를 앞세운 Major 업체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화질 및 슬림 제품에 대한 소비자 Needs가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소재인 LED BLU(Back Light Unit)를 적용하여 TV의 밝기와 명암비를 높이고 소비전력을 낮춘 LED TV가 시장의 Main Stream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TV에서 인터넷 정보를 얻으려는 Needs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다양한 App을 이용 가능한 스마트 TV 출시(2010년), 소비자의 사용편의 혁신을 위한 음성/제스처 기반의 신개념 입력방식(Smart Interaction) 도입(2012년), 사용자의 사용이력을 기반으로 한 방송 프로그램 추천 시스템 도입(2013년), 비디오 시청 경험 극대화를 위한 사용성 혁신, 다양한 콘텐츠 확보, 플랫폼 성능 강화 등(2014년)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청자가 콘텐츠를 구매하는 생태계 변화에 맞춰, TV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UX 혁신을 이뤄냈습니다(2015년). 또한, 2016년 스마트TV는 연결된 주변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리모컨으로 인식된 주변기기를 컨트롤하고, TV 시청 경험을 방해 받지 않고 다양한 소스를 한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쉽게 스마트 허브를 이용하고 TV를 제어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콘텐츠를 대형 스크린의 압도적인 화질로 언제든지 볼 수 있어 기존의 TV만을 사용하는 경험보다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능형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볼륨, 채널 이동 그리고 화면 모드 변경까지 사용자가 원하는 TV 제어 기능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도 UHD TV와 60" 이상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고해상도와 대형으로의 시장 전환은 보다 가속화되며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CE 부문 주요제품 시장점유율 추이>

제 품	2017년	2016년	2015년
TV	20.0%	21.6%	21.0%

※ 2015년, 2016년 시장점유율은 외부조사기관인 IHS의 세계시장점유율 자료(수량기준)이며, 2017년 시장점유율은 당사추정치입니다.

(영업의 개황 등)

당사는 2006년이후 2017년까지 12년 연속으로 TV 전체, FPTV, LCD TV 세계 1위 등 Triple Crown을 지속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세계 최초로 LED TV(LED BLU, 초슬림/초경량화, 친환경)라는 신규 category를 창출하였고 2010년 1분기에 세계 최초로 3D TV/BDP/안경/BD Title을 동시에 제공하는 3D Total Solution 출시하며, 압도적 경쟁력 우위로 3D TV시장을 선점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2010년에 세계 최초 TV용 App Store 'Samsung Apps'를 런칭한 이후 2011년에는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지속 추가하여 "스마트 TV = SAMSUNG"이라는 이미지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당사는 음성/제스처 기반의 신개념 입력방식(Smart Interaction)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하였고, 2013년에는 기존 대비 화질 및 해상도가 혁신적으로 높아진 UHD TV를 출시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신규 Form factor인 Curved TV 출시, 2015년은 나노입자의 퀀텀닷 SUHD TV의 최초 출시를 통해 Premium 시장을 주도하며 리더십을 유지하였고, 2016년은 2세대 퀀텀닷, HDR 1000 기술로 화질의 디테일을 한층 끌어 올렸습니다.

2017년에 당사는 QLED TV로 신규 카테고리 창출을 통해 어떤 밝기 영역에서나 정확한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컬러 볼륨 100%를 구현하고, 최고 2000 nit 밝기까지 제공, 더 이상의 화질 논쟁은 필요 없는 궁극의 화질을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그 동안 사용자의 Pain point였던, TV 와 주변 기기 연결시 수많은 케이블로 인한 복잡함과 각각의 기기 마다 리모컨이 필요 했던 것을 투명한 옵티컬 케이블 하나로 연결된 선처리, 하나의 리모컨으로 셋탑박스, 게임콘솔 등 모든 연결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 하였습니다. 이로써 한 차원 다른 TV 출시를 통해, 당사는 업계 리더로서 새로운 TV 개념을 시장에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비자의 Lifestyle 과 일체화된 미래 TV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의 일환으로, '더 프레임(The Frame)TV'는 주거환경의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는 '스크린 에브리웨어(Screen Everywhere)' 비전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18년에 UHD보다 4배의 해상도인8K 초고화질QLED TV를 선보이는 등 TV 업계 리더로서, 소비자에게 진정한 TV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 변화와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IM 부문]

(국내외 시장여건 등)

스마트폰 시장규모는 2017년 15.6억대에서 2018년에는 약 5% 성장하여 16.4억대 수준이 예상됩니다. 태블릿 시장규모는 2017년 1.9억대에서 2018년 1.9억대 수준으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 Strategy Analytics - 스마트폰 2017.12월, 태블릿 2017.12월)

<IM 부문 주요제품 시장점유율 추이>

제 품	2017년	2016년	2015년
HHP	19.5%	19.2%	20.7%

※ 2015년, 2016년, 2017년 시장점유율은 외부조사기관인 Strategy Analytics의 세계시장점유율 자료(수량기준)를 활용하였습니다.

(영업의 개황 등)

당사는 주력사업인 휴대폰 시장에서 글로벌 1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글로벌 1위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뿐만 아니라 전체 모바일 시장에서의 사업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태블릿과 웨어러블, 액세서리 등의 제품들과 함께 서비스, 온라인, B2B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당사가 보유한 Premium에서 보급형까지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라인업을 활용하여 지역별 시장 상황과 경쟁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Premium 스마트폰은 갤럭시 S와 갤럭시 Note 시리즈를 통해 대화면AMOLED 디스플레이, Edge 디자인, S펜, 방수방진, 고속충전 및 무선충전, Samsung Pay 등 고객 니즈 기반의 차별화된 가치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왔으며, 2017년 출시한 갤럭시 S8은 몰입감있는 Infinity Display와 홍채인식, 지능형 서비스인 Bixby 등으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폰은 Premium 스마트폰을 통해 검증된 메탈 디자인, 방수방진, 고화

소 셀피 카메라, Samsung Pay 등 실생활에 유용한 차별화 요소를 확대 적용하여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라인업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외에도 갤럭시 Tab S 등의 Premium 태블릿과 Smartwatch, VR 기기, 360 카메라와 같은 웨어러블 제품으로 고객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하는 Samsung Dex 등의 다양한 액세서리 제품을 통해 당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모바일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더불어, 당사는 그 동안 Samsung Pay, Samsung Health, Samsung Cloud 등의 실용적이고 가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해 왔으며, 2017년에는 지능형 서비스인 Bixby로 스마트폰을 더욱 쉽게 사용하고 고객 상황에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등 새롭고 차별화 된 경험을 제공해 왔습니다.

당사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연결되는 통합 IoT 솔루션을 확보하고 타사 기기와의 연결이 가능한 개방형 Ecosystem으로 확장하여 고객이 어느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일관되고 끊김 없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One 삼성 기반의 Multi Device Experience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G, Intelligence, IoT, Cloud, Mobile B2B 시장 등 미래 성장에 대비한 투자도 지속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R&D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제공하여,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DS 부문]

- 반도체 사업부문

(국내외 시장여건 등)

DRAM은 모바일 분야 및 서버용 신제품 수요 증가 및 공급 업체의 선단공정 확대 지연 등으로 인해 공급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타 공급 업체의 선단공정 안정화가 늦어지고 있고, 고성능 고신뢰성 제품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당사로의 수요 집중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NAND는 SSD 채용 확대, 신규 모바일 기기의 NAND 탑재량 증가 등으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업체의 Planar NAND 추가 공정 개발의 한계 및 경쟁사의 Vertical NAND 확산이 지연되고 있어 Chip 공급 부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사업부문 주요제품 시장점유율 추이>

제 품	2017년	2016년	2015년
DRAM	45.8%	48.0%	45.3%

※ 2015년, 2016년 시장점유율은 외부조사기관인 DRAMeXchange의 세계시장 점유율 자료(금액기준)를 활용하였으며, 2017년 시장점유율은 당사추정치입니다.

(영업의 개황 등)

당사는 2016년 10나노급 DRAM을 세계최초로 출시 하였으며, 경쟁사 대비 1년 이상 앞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AI/슈퍼컴퓨터에 구현되는 고성능 고대역폭 메모리(HBM2) 공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NAND의 경우 Planar 타입과 Vertical 타입을 동시에 양산하는 등 고객이 원하는 모든 제품을 적기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 대비 앞선 기술력을 확보한 Vertical NAND 는 4세대 적층 제품을 본격 양산하고 있으며, 이를 고성능 SSD에 탑재하여 프리미엄 시장에 적극 진입하는 한편, 2017년 중 포터블 SSD T5를 글로벌 런칭하며 포터블 SSD 시장 확대에 나섰습니다. 또한, 세계최초로 자동차용 eUFS를 양산하여 자동차용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여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사는 선단공정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 제품 확대 및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이용한 응용차별 최적 대응을 통해 메모리1위 업체로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System LSI 시장은 모바일 중심의 성장에서 Automotive, IoT, Wearable, Health Care 등 시장의 다각화 증으로 신규 제품군의 시장 확대로 성장세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당사는 선단 공정 조기 개발 및 차별화 기술 적용 제품의 선출시로 성장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AP 모뎀 통합칩은 경쟁사보다 앞서 선단공정을 도입하여 프리미엄부터 중저가 시장까지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Foundry 시장에서는 앞선 선단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대형 Fabless 업체와 협력 중입니다. 당사는 업계 최초로 2016년 10나노 제품 공급을 시작하였으며, 7나노 공정 또한 적기 개발하여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DP 사업부문

(국내외 시장여건 등)

디스플레이 패널의 주요 생산업체는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 삼성디스플레이, 엘지디스플레이 등

일본 : Sharp, Japan Display 등

대만 : AU Optronics, Innolux 등

중국 : BOE, CSOT, Tianma, CEC Panda 등

당사는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형 TFT-LCD 시장을 선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2007년 세계 최초로 OLED 제품의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 중소형 OLED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OLED 패널은, 모바일 시장內에서 Mainstream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LTPS LCD와의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 LCD 패널은, 패널 업계의 공급 확대로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Risk가 있으나, 고해상도 및 초대형 TV 등 프리미엄 TV 시장의 성장 또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DP 사업부문 주요제품 시장점유율 추이>

제 품	2017년	2016년	2015년
디스플레이 패널	15.3%	17.1%	21.1%

※ 2015년, 2016년, 2017년 시장점유율은 외부조사기관인 IHS의 세계시장점유율 자료(대형패널-금액기준)를 활용하였습니다.

(영업의 개황 등)

OLED 패널 사업은, 2017년 4분기 중소형 주요 고객의 Flagship 스마트폰 패널 공급 확대로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2018년 1분기는 LTPS LCD와의 경쟁 지속 및 스마트폰 Set 시장의 비수기 진입 속에서 OLED 패널 수요 둔화가 우려됩니다.

이에 당사는 고객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제품 생산성 향상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형 LCD 패널은, 2017년 4분기 패널 가격 하락으로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2018년 1분기도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으로 수요 감소가 우려됩니다.

이에 당사는 수율 및 원가 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고부가 제품의 판매 비중을 확대하여 수익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Harman 부문]

(국내외 시장여건 등)

자동차와 프로페셔널/소비자 오디오 시장은 경쟁이 매우 심한 가운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카 분야에는 자동차 제조사들과 협력하는 여러 회사들(Alpine, Aptiv, Continental, Mitsubishi, Panasonic 等)이 있습니다.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넥티드카 영역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자율주행 등 가장 앞선 기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 분야는 현재 Major업체들과 신규업체들간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오디오시스템 분야도 주요 업체들(Bose, Pioneer, Panasonic)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미래에도 이 분야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예상되며 여러 카오디오업체들은 다양한 음향관리 솔루션 개발 등으로 차별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분야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페셔널/소비자오디오 산업은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 집중도가 낮으며 소수의 선도업체들(Amazon, Beats, Bose, Ultimate Ears 等)이 있습니다. 특히, 커넥티드홈과 스마트 스피커 제품은 시장 포화상태로, 새로운 업체들과 기존 업체들간 경쟁 상황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Harman 부문 주요제품 시장점유율 추이>

제품	2017년	2016년	2015년
Headunits	25.4%	25.0%	21.2%

※ 2015년, 2016년, 2017년 시장점유율은 외부조사기관인 IHS의 자료를 활용한 당사 추정치입니다.

(영업의 개황 등)

당사는 전장부품 및 프로페셔널/소비자 오디오 시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어 나가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 전략적 인수합병, 그리고 널리 알려진 브랜드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당사의 Harman 부문은 전장부품시장에서 선도업체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량판매 시장에서부터 고급특화시장에 걸쳐 차량들에 지속적으로 폭넓고 다양한 브랜드들을 활용하는 한편, Harman 브랜드에 부합하는 품질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카오디오와 Connectivity 분야에서 끊임없이 혁신에 집중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과의 공존을 견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선도기술인 OTA(Over the Air)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해 커넥티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자동차시장에서의 성공요인들은 프로페셔널/소비자 오디오 시장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미상 3회, 아카데미상 2회 등을 수상한 바와 같이 Harman 브랜드들은 일상적인 소비자들과 음악 애호가 사이에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무선 스마트 스피커와 같은 전도 유망한 분야들에서 신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신규 고객들을 당사로 유인함과 동시에 브랜드 평판을 더욱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전장부품 등의 산업분야에서 선도업체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업의 개요에 기재된 향후 전망치는 사설 경제연구소 및 국가기관 발표자료 등을 기초로 당사에서 분석한 예측자료이므로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1호 의안) 제49기(2017.1.1-2017.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 ·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월 28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49 기 :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전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9 (당) 기		제 48 (전) 기	
자 산				
I. 유 동 자 산		146,982,464		141,429,704
1. 현금및현금성자산	30,545,130		32,111,442	
2. 단기금융상품	49,447,696		52,432,411	
3.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	3,191,375		3,638,460	
4. 매출채권	27,695,995		24,279,211	
5. 미수금	4,108,961		3,521,197	
6. 선급금	1,753,673		1,439,938	
7. 선급비용	3,835,219		3,502,083	
8. 재고자산	24,983,355		18,353,503	
9. 기타유동자산	1,421,060		1,315,653	
10. 매각예정분류자산	-		835,806	
II. 비 유 동 자 산		154,769,626		120,744,620
1.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7,752,180		6,804,276	
2. 만기보유금융자산	106,751		-	
3.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6,802,351		5,837,884	
4. 유형자산	111,665,648		91,473,041	
5. 무형자산	14,760,483		5,344,020	
6. 장기선급비용	3,434,375		3,834,831	
7. 순확정급여자산	825,892		557,091	
8. 이연법인세자산	5,061,687		5,321,450	
9. 기타비유동자산	4,360,259		1,572,027	
자 산 총 계		301,752,090		262,174,324
부 채				
I. 유 동 부 채		67,175,114		54,704,095

과 목	제 49 (당) 기		제 48 (전) 기	
1. 매입채무	9,083,907		6,485,039	
2. 단기차입금	15,767,619		12,746,789	
3. 미지급금	13,899,633		11,525,910	
4. 선수금	1,249,174		1,358,878	
5. 예수금	793,582		685,028	
6. 미지급비용	13,996,273		12,527,300	
7. 미지급법인세	7,408,348		2,837,353	
8. 유동성장기부채	278,619		1,232,817	
9. 총당부채	4,294,820		4,597,417	
10. 기타유동부채	403,139		351,176	
11. 매각예정분류부채	-		356,388	
II. 비 유 동 부 채		20,085,548		14,507,196
1. 사채	953,361		58,542	
2. 장기차입금	1,814,446		1,244,238	
3. 장기미지급금	2,043,729		3,317,054	
4. 순확정급여부채	389,922		173,656	
5. 이연법인세부채	11,710,781		7,293,514	
6. 장기총당부채	464,324		358,126	
7. 기타비유동부채	2,708,985		2,062,066	
부 채 총 계		87,260,662		69,211,291
자 본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07,213,416		186,424,328
I. 자본금		897,514		897,514
1. 우선주자본금	119,467		119,467	
2. 보통주자본금	778,047		778,047	
II. 주식발행초과금		4,403,893		4,403,893
III. 이익잉여금		215,811,200		193,086,317
IV. 기타자본항목		(13,899,191)		(11,934,586)
V. 매각예정분류기타자본항목		-		(28,810)
비지배지분		7,278,012		6,538,705
자 본 총 계		214,491,428		192,963,03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01,752,090		262,174,324

- 연결 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 49 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48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9 (당) 기		제 48 (전) 기	
I. 매출액		239,575,376		201,866,745
II. 매출원가		129,290,661		120,277,715
III. 매출총이익		110,284,715		81,589,030
판매비와관리비	56,639,677		52,348,358	
IV. 영업이익		53,645,038		29,240,672
기타수익	3,010,657		3,238,261	
기타비용	1,419,648		2,463,814	
지분법이익	201,442		19,501	
금융수익	9,737,391		11,385,645	
금융비용	8,978,913		10,706,613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6,195,967		30,713,652
법인세비용	14,009,220		7,987,560	
VI. 당기순이익		42,186,747		22,726,092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41,344,569		22,415,655	
비지배지분	842,178		310,437	
VII. 주 당 이 익				
기본주당이익(단위:원)		299,868		157,967
희석주당이익(단위:원)		299,868		157,967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49 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48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9 (당) 기		제 48 (전) 기	
I. 연결당기순이익		42,186,747		22,726,092
II. 연결기타포괄손익		(5,502,257)		1,991,4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407,900		1,014,040
1.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414,247		963,602	
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6,347)		50,43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5,910,157)		977,360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511,207		(23,839)	
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49,256)		(130,337)	
3.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6,334,987)		1,131,536	
4.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37,121)		-	
III. 총포괄이익		36,684,490		24,717,492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35,887,505		24,310,814	
비지배지분	796,985		406,678	

-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49 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48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항목	매각예정분류 기타자본항목	소 계		
2016.1.1 (전기초)	897,514	4,403,893	185,132,014	(17,580,451)	23,797	172,876,767	6,183,038	179,059,805
I. 총포괄이익								
1. 당기순이익	-	-	22,415,655	-	-	22,415,655	310,437	22,726,092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	-	-	(87,706)	(23,797)	(111,503)	87,664	(23,839)
3.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80,146)	212	(79,934)	35	(79,899)
4.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1,160,316	-	1,160,316	(28,780)	1,131,536
5.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926,280	-	926,280	37,322	963,602
6. 매각예정 분류	-	-	-	29,022	(29,022)	-	-	-
II.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1. 배당	-	-	(3,061,361)	-	-	(3,061,361)	(65,161)	(3,126,522)
2. 연결실체내 자본거래 등	-	-	-	(37)	-	(37)	12,272	12,235
3. 연결실체의 변동	-	-	-	-	-	-	1,790	1,790
4. 자기주식의 취득	-	-	-	(7,707,938)	-	(7,707,938)	-	(7,707,938)
5. 자기주식의 소각	-	-	(11,399,991)	11,399,991	-	-	-	-
6. 기타	-	-	-	6,083	-	6,083	88	6,171
2016.12.31 (전기말)	897,514	4,403,893	193,086,317	(11,934,586)	(28,810)	186,424,328	6,538,705	192,963,033
2017.1.1 (당기초)	897,514	4,403,893	193,086,317	(11,934,586)	(28,810)	186,424,328	6,538,705	192,963,033
I. 총포괄이익								
1. 당기순이익	-	-	41,344,569	-	-	41,344,569	842,178	42,186,747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	-	-	489,150	-	489,150	22,057	511,207
3.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54,300)	-	(54,300)	(1,303)	(55,603)
4.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6,289,926)	28,810	(6,261,116)	(73,871)	(6,334,987)
5.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406,323	-	406,323	7,924	414,247
6.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37,121)	-	(37,121)	-	(37,121)
II.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1. 배당	-	-	(6,747,123)	-	-	(6,747,123)	(64,277)	(6,811,400)
2. 연결실체내 자본거래 등	-	-	-	(2,992)	-	(2,992)	15,114	12,122
3. 연결실체의 변동	-	-	-	(2,699)	-	(2,699)	(9,352)	(12,051)
4. 자기주식의 취득	-	-	-	(8,350,424)	-	(8,350,424)	-	(8,350,424)
5. 자기주식의 소각	-	-	(11,872,563)	11,872,563	-	-	-	-
6. 기타	-	-	-	4,821	-	4,821	837	5,658
2017.12.31 (당기말)	897,514	4,403,893	215,811,200	(13,899,191)	-	207,213,416	7,278,012	214,491,428

-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 49 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48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9 (당) 기		제 48 (전) 기	
I. 영업활동 현금흐름		62,162,041		47,385,644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67,777,432		52,299,610	
가. 당기순이익	42,186,747		22,726,092	
나. 조정	36,211,232		30,754,471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0,620,547)		(1,180,953)	
2. 이자의 수취	1,581,117		1,405,085	
3. 이자의 지급	(542,715)		(443,838)	
4. 배당금 수입	173,305		256,851	
5. 법인세 납부액	(6,827,098)		(6,132,064)	
II. 투자활동 현금흐름		(49,385,216)		(29,658,675)
1. 단기금융상품의 손감소(증가)	387,627		(6,780,610)	
2.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499,856		3,010,003	
3.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2,129,551)	
4.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1,750,221		789,862	
5.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1,079,355)		(1,741,547)	
6.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191,826		2,010,356	
7.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358,497)		(1,498,148)	
8.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106,751)		-	
9.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처분	355,926		2,280,203	
10.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취득	(25,293)		(84,306)	
11. 유형자산의 처분	308,354		270,874	
12. 유형자산의 취득	(42,792,234)		(24,142,973)	
13. 무형자산의 처분	733		6,944	
14. 무형자산의 취득	(983,740)		(1,047,668)	
15.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8,754,268)		(622,050)	
16. 사업양도로 인한 현금유입액	1,248,834		-	
17. 현금의 기타유출입	(28,455)		19,936	
III. 재무활동 현금흐름		(12,560,867)		(8,669,514)
1. 단기차입금의 순증가	2,730,676		1,351,037	
2. 자기주식의 취득	(8,350,424)		(7,707,938)	
3. 사채 및 장기차입금의 차입	998,311		1,041,743	
4. 사채 및 장기차입금의 상환	(1,140,803)		(252,846)	
5. 배당금의 지급	(6,804,297)		(3,114,742)	
6. 비지배지분의 증감	5,670		13,232	
IV.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1,782,270)		417,243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증가(I +II +III+IV)		(1,566,312)		9,474,698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2,111,442		22,636,744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0,545,130		32,111,442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전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적 사항 :

가. 연결회사의 개요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69년 대한민국에서 설립되어 1975년에 대한민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 및 종속기업(이하 삼성전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의 사업은 CE부문, IM부문, DS부문과 Harman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E(Consumer Electronics) 부문은 디지털 TV, 모니터,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IM(Information technology & Mobile communications) 부문은 휴대폰, 통신시스템, 컴퓨터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S(Device Solutions) 부문은 메모리 반도체, Foundry, System LSI 등의 반도체 사업과 LCD 및 OLED 패널 등의 디스플레이(DP)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arman부문은 전장부품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회사는 삼성디스플레이 및 Samsung Electronics America 등 270개의 종속기업(주석 1. 나 참조)을 연결대상으로 하고, 삼성전기 등 41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지분법적용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 종속기업 현황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기업명	업종	지분율 (%(*))
국내	삼성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생산 및 판매	84.8
	에스유머티리얼스	디스플레이 부품 생산	50.0
	스테코	반도체 부품생산	70.0
	세메스	반도체/FPD제조장비 생산	91.5
	삼성전자서비스	전자제품 수리서비스	99.3
	삼성전자판매	전자제품 판매	100.0
	삼성전자로지텍	종합물류대행	100.0
	삼성메디슨	의료기기	68.5
	SMC 21호 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99.0
	SMC 22호 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99.0
	SMC 23호 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99.0
	SMC 26호 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99.0
	SMC 27호 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99.0
	SMC 28호 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99.0
	SMC 29호 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99.0
	SMC 32호 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99.0
	SMC 33호 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99.0
	SMC 37호 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99.0
	미래로시스템	반도체 공정불량 및 품질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99.9
	반도체성장 전문투자형 사모 투자신탁	반도체산업 투자	66.7
하만인터내셔널코리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	100.0	
레드벤드소프트웨어코리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100.0	

(*) 종속기업 보유 지분율을 포함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지역	기업명	업종	지분율 (%)(*)
미주	Samsung Electronics America(SEA)	전자제품 판매	100.0
	NexusDX(Nexus)	의료기기	100.0
	NeuroLogica	의료기기	100.0
	Samsung Semiconductor(SSI)	반도체/디스플레이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Canada(SECA)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Research America(SRA)	R&D	100.0
	Samsung Mexicana(SAMEX)	전자제품 생산	100.0
	Samsung International(SII)	TV/모니터 생산	100.0
	Samsung Austin Semiconductor(SAS)	반도체 생산	100.0
	Samsung Electronics Mexico(SEM)	전자제품 판매	99.9
	SEMES America(SEMESA)	반도체 장비	100.0
	Samsung Electronics Digital Appliance Mexico(SEDAM)	전자제품 생산	99.9
	Samsung Electronics Latinoamerica Miami(SEMI)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Latinoamerica(SELA)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Venezuela(SEVEN)	마케팅 및 서비스	100.0
	Samsung Electronica Colombia(SAMCOL)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Panama(SEPA)	컨설팅	100.0
	Samsung Electronica da Amazonia(SEDA)	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Argentina(SEASA)	마케팅 및 서비스	100.0
	Samsung Electronics Chile(SECH)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Peru(SEPR)	전자제품 판매	100.0
	RT SV CO-INVEST(RT-SV)	벤처기업 투자	99.9
	Samsung HVAC(구 Quietside)	에어컨공조 판매	100.0
	SmartThings	스마트홈기기 판매	100.0
	Samsung Pay	모바일 결제 개발 및 서비스	100.0
	Prismview	LED 디스플레이 생산 및 판매	100.0
	Beijing Integrated Circuit Industry International Fund (Beijing Fund)	벤처기업 투자	61.4
	Stellus Technologies	반도체 시스템 생산 및 판매	100.0
	Samsung Oak Holdings(SHI)	Holding Company	100.0
	AdGear Technologies	디지털광고 플랫폼	100.0
Joyent	클라우드 서비스	100.0	

(*) 종속기업 보유 지분율을 포함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지역	기업명	업종	지분율 (%)(*)
미주	Samsung Next	Holding Company	100.0
	Samsung Next Fund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100.0
	Dacor Holdings	Holding Company	100.0
	Dacor	가전제품 생산 및 판매	100.0
	Dacor Canada	가전제품 판매	100.0
	EverythingDacor.com	가전제품 판매	100.0
	Distinctive Appliances of California	가전제품 판매	100.0
	Viv Labs	인공지능관련 신기술 연구	100.0
	SigMast Communications (구 NewNet Communication Technologies (Canada))	RCS (Rich Communication Service)	100.0
	AMX Holding Corporation	Holding Company	100.0
	AMX LLC	Holding Company	100.0
	Harman Becker Automotive Systems	오디오제품 생산, 판매, R&D	100.0
	Harman Connected Services Engineering	Connected Service Provider	100.0
	Harman Connected Services Holding	Connected Service Provider	100.0
	Harman Connected Services, Inc.	Connected Service Provider	100.0
	Harman Connected Services South America	Connected Service Provider	100.0
	Harman da Amazonia Industria Electronica e Participacoes	오디오제품 생산, 판매	100.0
	Harman de Mexico S. de R.L. de C.V.	오디오제품 생산	100.0
	Harman do Brasil Industria Electronica e Participacoes.	오디오제품 판매, R&D	100.0
	Harman Financial Group	Management Company	100.0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Canada	오디오제품 판매	100.0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Holding Company	100.0
	Harman International Mexico S de RL de CV	오디오제품 판매	100.0
	Harman Investment Group, LLC	Financing Company	100.0
	Harman KG Holding, LLC	Holding Company	100.0
	Harman Professional	오디오제품 판매, R&D	100.0
	Red Bend Software	소프트웨어 디자인	100.0
	S1NN USA	R&D	100.0
	Southern Vision Systems	영상 감지 장치 개발	100.0
	Triple Play Integration	Connected Service Provider	100.0
	Samsung Electronics Home Appliances America(SEHA)	가전제품 생산	100.0
	China Materialia	벤처기업 투자	98.0

(*) 종속기업 보유 지분율을 포함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지역	기업명	업종	지분율 (%) (*)
유럽/CIS	Samsung Electronics (UK)(SEUK)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Holding(SEHG)	Holding Company	100.0
	Samsung Semiconductor Europe GmbH(SSEG)	반도체/디스플레이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GmbH(SEG)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Iberia(SESIA)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France(SEF)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Hungarian(SEH)	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Czech and Slovak(SECZ)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Italia(SEI)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Europe Logistics(SELS)	물류	100.0
	Samsung Electronics Benelux (SEBN)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Display Slovakia(SDSK)	디스플레이 임가공	100.0
	Samsung Electronics Romania(SEROM)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Overseas(SEO)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Polska(SEPOL)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Portuguesa(SEP)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Nordic(SENA)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Semiconductor Europe(SSEL)	반도체/디스플레이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Austria(SEAG)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Slovakia(SESK)	TV/모니터 생산	100.0
	Samsung Electronics Europe Holding(SEEH)	Holding Company	100.0
	Samsung Electronics Poland Manufacturing(SEPM)	가전제품 생산	100.0
	Samsung Electronics Greece(SEGR)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Nanoradio Design Center(SNDC)	R&D	100.0
	Samsung Electronics Air Conditioner Europe B.V.(SEACE)	에어컨공조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Rus Company(SERC)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Baltics(SEB)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Ukraine Company(SEUC)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R&D Institute Rus(SRR)	R&D	100.0
	Samsung Electronics Central Eurasia(SECE)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Rus Kaluga(SERK)	TV 생산	100.0
	Samsung Electronics(London) Limited(SEL)	Holding Company	100.0
	Samsung Denmark Research Center(SDRC)	R&D	100.0
Samsung France Research Center(SFRC)	R&D	100.0	
Samsung Cambridge Solution Centre(SCSC)	R&D	100.0	
Samsung Electronics Switzerland GmbH(SESIG)	전자제품 판매	100.0	

(*) 종속기업 보유 지분율을 포함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지역	기업명	업종	지분율 (%) (*)
유럽/CS	Samsung Electronics Caucasus(SECC)	마케팅	100.0
	Joyent(UK)	클라우드 서비스	100.0
	Harman Connected Services OOO	Connected Service Provider	100.0
	Harman RUS CIS LLC	오디오제품 판매	100.0
	Aditi Technologies Europe	오디오제품 판매 등	100.0
	AKG Acoustics	오디오제품 생산, 판매	100.0
	AMX (Germany)	오디오제품 판매	100.0
	AMX UK	오디오제품 판매	100.0
	Duran Audio B.V.	오디오제품 판매, R&D	100.0
	Duran Audio Iberia Espana	오디오제품 판매	100.0
	Endeleo	오디오제품 판매, R&D	100.0
	Harman Automotive UK	오디오제품 생산	100.0
	Harman Becker Automotive Systems (Germany)	오디오제품 생산, 판매, R&D	100.0
	Harman Becker Automotive Systems Italy	오디오제품 판매	100.0
	Harman Becker Automotive Systems Manufacturing Kft	오디오제품 생산, R&D	100.0
	Harman Belgium	오디오제품 판매	100.0
	Harman Connected Services AB.	Connected Service Provider	100.0
	Harman Connected Services Finland OY	Connected Service Provider	100.0
	Harman Connected Services (Germany)	Connected Service Provider	100.0
	Harman Connected Services	Connected Service Provider	100.0
	Harman Connected Services Poland Sp.zoo	Connected Service Provider	100.0
	Harman Connected Services UK	Connected Service Provider	100.0
	Harman Consumer Division Nordic A/S	오디오제품 판매	100.0
	Harman Consumer Finland OY	오디오제품 판매	100.0
	Harman Consumer Nederland B.V.	오디오제품 판매	100.0
	Harman Deutschland	오디오제품 판매	100.0
	Harman Finance International GP S.a.r.l	Holding Company	100.0
	Harman Finance International SCA	Financing Company	100.0
	Harman France SNC	오디오제품 판매	100.0
	Harman Holding & Co. KG	Management Company	100.0
	Harman Hungary Financing	Financing Company	100.0
	Harman Inc. & Co. KG	Holding Company	100.0
Harman International Estonia OU	R&D	100.0	

(*) 종속기업 보유 지분율을 포함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지역	기업명	업종	지분율 (%) (*)
유럽/OS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UK)	오디오제품 판매 등	100.0
	Harman International Romania SRL	R&D	100.0
	Harman International s.r.o	오디오제품 생산	100.0
	Harman International SNC	오디오제품 판매	100.0
	Harman Management	Holding Company	100.0
	Harman Professional Kft	오디오제품 생산, R&D	100.0
	Inspiration Matters	오디오제품 판매, R&D	100.0
	Knight Image	오디오제품 판매, R&D	100.0
	Martin Manufacturing (UK)	오디오제품 생산	100.0
	Harman Professional Denmark ApS (구 Martin Professional ApS)	오디오제품 판매, R&D	100.0
	Harman Professional France SAS (구 Martin Professional France)	오디오제품 판매	100.0
	Harman Professional Germany GmbH (구 Martin Professional GmbH)	오디오제품 판매	100.0
	R&D International	오디오제품 생산	100.0
	Red Bend Software (UK)	소프트웨어 디자인	100.0
	Red Bend Software SAS	소프트웨어 디자인	100.0
	Studer Professional Audio	오디오제품 판매, R&D	100.0
	Innoetics E.P.E.	소프트웨어 개발	100.0
	ARCAM	Holding Company	100.0
	A&R Cambridge	오디오제품 판매	100.0

(*) 종속기업 보유 지분율을 포함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지역	기업명	업종	지분율 (%)(*)
중동 및 아프리카	Samsung Electronics West Africa(SEWA)	마케팅	100.0
	Samsung Electronics East Africa(SEEA)	마케팅	100.0
	Samsung Gulf Electronics(SGE)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Egypt(SEEG)	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Israel(SEIL)	마케팅	100.0
	Samsung Electronics Tunisia(SETN)	마케팅	100.0
	Samsung Electronics Pakistan(SEPAK)	마케팅	100.0
	Samsung Electronics South Africa(SSA)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Turkey(SETK)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Semiconductor Israel R&D Center(SIRC)	R&D	100.0
	Samsung Electronics Levant(SELV)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Maghreb Arab(SEMAG)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South Africa Production(SSAP)	TV/모니터 생산	100.0
	Broadsense	서비스	100.0
	Global Symphony Technology Group	Holding Company	100.0
	Harman Connected Services Morocco	Connected Service Provider	100.0
	Harman Industries Holdings Mauritius	Holding Company	100.0
	iOnRoad	R&D	100.0
	iOnRoad Technologies	R&D	100.0
	Red Bend	오디오제품 생산	100.0
TowerSec (Israel)	R&D	100.0	

(*) 종속기업 보유 지분율을 포함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지역	기업명	업종	지분율 (%) (*)
아시아 (중국제외)	Samsung Japan(SJC)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R&D Institute Japan(SRJ)	R&D	100.0
	Samsung Electronics Japan(SEJ)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Display (M)(SDMA)	전자제품 생산	100.0
	Samsung Electronics (M)(SEMA)	가전제품 생산	100.0
	Samsung Vina Electronics(SAVINA)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Asia Private(SAPL)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India Electronics(SIEL)	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	100.0
	Samsung R&D Institute India-Bangalore(SRI-B)	R&D	100.0
	Samsung Nepal Services(SNSL)	서비스	100.0
	Samsung Electronics Australia(SEAU)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Indonesia(SEIN)	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	100.0
	Samsung Telecommunications Indonesia(STIN)	전자제품 판매 및 서비스	100.0
	Thai Samsung Electronics(TSE)	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	91.8
	Samsung Electronics Philippines(SEPCO)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Malaysia Electronics(SME)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R&D Institute Bangladesh(SRBD)	R&D	100.0
	Samsung Electronics Vietnam(SEV)	전자제품 생산	100.0
	Samsung Electronics Vietnam THAINGUYEN(SEVT)	통신제품 생산 및 판매	100.0
	Samsung Medison India(SMIN)	의료기기	100.0
	Samsung Electronics New Zealand(SENZ)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Display Vietnam(SDV)	디스플레이 생산	100.0
	Samsung Electronics HCMC CE Complex(SEHC)	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	100.0
	Laos Samsung Electronics Sole(LSE)	마케팅	100.0
	AMX Products and Solutions Private	오디오제품 판매	100.0
	Harman Connected Services India	Connected Service Provider	100.0
	Harman Connected Services Technologies	Connected Service Provider	100.0
	Harman International (India) Private	오디오제품 판매, R&D	100.0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PTY	Holding Company	100.0
	Harman International Singapore	오디오제품 판매	100.0
	Harman Malaysia Sch. Bhd.	오디오제품 판매	100.0
	Harman Professional Singapore Pte.	오디오제품 판매	100.0
INSP India Software Development Pvt.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100.0	
Martin Professional Pte.	오디오제품 판매	100.0	

(*) 종속기업 보유 지분율을 포함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지역	기업명	업종	지분율 (%)(*)
아시아 (중국제외)	Harman Connected Services Japan	Connected Service Provider	100.0
	Harman International Japan	오디오제품 판매, R&D	100.0
	Red Bend Software Japan	소프트웨어 디자인	100.0
	Studer Japan	Holding Company	100.0
중국	Samsung Display Dongguan(SDD)	디스플레이 생산	100.0
	Samsung Display Tianjin(SDT)	디스플레이 생산	95.0
	Samsung Electronics Hong Kong(SEHK)	전자제품 판매	100.0
	Suzhou Samsung Electronics(SSEC)	가전제품 생산	88.3
	Samsung Suzhou Electronics Export(SSEC-E)	가전제품 생산	100.0
	Samsung (China) Investment(SCIC)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Mobile R&D Center China-Guangzhou (SRC-Guangzhou)	R&D	100.0
	Samsung Tianjin Mobile Development Center(STMC)	R&D	100.0
	Samsung R&D Institute China-Shenzhen (SRC-Shenzhen)	R&D	100.0
	Samsung Electronics Suzhou Semiconductor(SESS)	반도체 임가공	100.0
	Samsung Electronics Huizhou(SEHZ)	전자제품 생산	99.9
	Tianjin Samsung Electronics(TSEC)	TV/모니터 생산	91.2
	Samsung Electronics Taiwan(SET)	전자제품 판매	100.0
	Beijing Samsung Telecom R&D Center(BST)	R&D	100.0
	Tianjin Samsung Telecom Technology(TSTC)	통신제품 생산	90.0
	Shanghai Samsung Semiconductor(SSS)	반도체/디스플레이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Suzhou Computer(SESC)	전자제품 생산	100.0
	Samsung Suzhou Module(SSM)	디스플레이 임가공	100.0
	Samsung Suzhou LCD(SSL)	디스플레이 생산	60.0
	Shenzhen Samsung Electronics Telecommunication (SSET)	통신제품 생산	95.0
	Samsung Semiconductor (China) R&D(SSCR)	R&D	100.0
	Samsung Electronics China R&D Center(SCRC)	R&D	100.0
	Samsung (China) Semiconductor(SCS)	반도체 생산	100.0
Samsung Electronics (Beijing) Service(SBSC)	서비스	100.0	

(*) 종속기업 보유 지분율을 포함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지역	기업명	업종	지분율 (%) (*)
중국	Tianjin Samsung LED(TSLED)	LED 생산	100.0
	SEMES (Xian)	반도체 장비	100.0
	Samsung Semiconductor Xian(SSCX)	반도체/디스플레이 판매	100.0
	Harman (China) Technologies	오디오제품 생산	100.0
	Harman (Suzhou) Audio and Infotainment Systems	오디오제품 판매	100.0
	Harman Automotive Electronic Systems (Suzhou)	오디오제품 생산, R&D	100.0
	Harman Commercial (Shanghai)	오디오제품 판매	100.0
	Harman Connected Services Taiwan	Connected Service Provider	100.0
	Harman Holding	오디오제품 판매	100.0
	Harman International (China) Holdings	오디오제품 판매, R&D	100.0
	Harman Automotive InfoTech (Dalian) (구 Harman NeusoftAutomotive Infotech (Dalian))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100.0
	Harman Technology (Shenzhen)	오디오제품 판매, R&D	100.0
	Harman Connected Services Solutions (Beijing)	Connected Service Provider	100.0
	Harman Connected Services Solutions (Chengdu)	Connected Service Provider	100.0

(*) 종속기업 보유 지분율을 포함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다. 당기 및 전기의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백만원)

기업명	자산	부채	매출액	당기순이익(손실)
삼성디스플레이	50,723,199	12,243,688	30,111,427	3,352,802
Samsung Electronics America(SEA)	26,266,636	8,980,828	33,329,340	(70,198)
Harman과 그 종속기업(*)	14,676,715	5,391,669	7,103,437	209,015
Samsung (China) Investment(SCIC)	13,409,281	11,297,307	5,133,676	268,481
Samsung Display Vietnam(SDM)	10,460,755	9,495,803	18,193,257	1,257,300
Samsung Semiconductor(SSI)	10,125,193	5,376,696	28,870,987	83,113
Samsung Electronics Vietnam THANGUYEN(SEVT)	10,044,337	2,325,221	28,323,302	3,043,210
Samsung Electronics Vietnam(SEV)	9,592,074	1,875,105	19,344,045	2,007,876
Samsung Electronics Europe Holding(SEEH)	9,474,960	7,241,753	-	18,294
Samsung (China) Semiconductor(SCS)	8,076,107	1,499,220	4,513,291	1,359,007
Samsung Electronics Huizhou(SEHZ)	6,440,564	980,064	13,521,077	689,594
Samsung India Electronics(SIEL)	6,200,351	3,406,484	10,393,877	654,408
Samsung Asia Private(SAPL)	6,138,652	481,546	1,848,905	1,293,924
Samsung Electronica da Amazonia(SEDA)	5,838,533	1,514,891	7,108,691	1,449,426
Shanghai Samsung Semiconductor(SSS)	5,169,438	4,182,832	24,198,255	236,410
Samsung Austin Semiconductor(SAS)	4,943,576	448,772	3,473,545	197,729
Thai Samsung Electronics(TSE)	2,191,519	371,379	4,594,861	164,627
Samsung Electronics Slovakia(SESK)	2,019,572	1,051,361	3,237,384	100,617
Samsung Suzhou LCD(SSL)	2,019,262	852,618	1,802,543	107,677
Samsung Electronics Europe Logistics(SELS)	1,927,321	1,810,014	14,060,511	6,718
Samsung Electronics Hungarian(SEH)	1,823,278	238,383	2,768,150	459,848
Samsung Electronics HCMC CE Complex(SEHC)	1,784,883	1,282,489	3,940,762	302,674
Samsung Electronics GmbH(SEG)	1,743,138	1,685,252	6,536,684	530
Samsung Electronics (UK)(SEUK)	1,615,723	1,094,995	4,843,150	99,024
Samsung Electronics Indonesia(SEIN)	1,562,037	1,002,213	3,025,611	77,149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및 그 종속기업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2) 전기

(단위: 백만원)

기업명	자산	부채	매출액	당기순이익(손실)
삼성디스플레이	43,305,405	8,361,256	24,658,814	1,498,628
Samsung Electronics America(SEA)	21,810,492	9,496,649	34,521,654	246,141
Samsung (China) Investment(SCIC)	13,632,938	11,672,755	8,792,750	298,373
Samsung (China) Semiconductor(SCS)	9,749,448	4,564,793	4,152,137	1,113,218
Samsung Electronics Vietnam(SEV)	9,134,023	1,258,948	19,426,334	2,046,280
Samsung Electronics Europe Holding(SEEH)	8,643,308	6,661,092	-	350,974
Samsung Semiconductor(SSI)	7,804,698	3,746,687	19,911,135	30,247
Samsung Electronics Vietnam THAINGUYEN(SEVT)	7,646,828	2,179,023	23,563,736	2,641,418
Samsung Electronics Huizhou(SEHZ)	6,174,579	1,106,633	12,971,475	764,426
Shanghai Samsung Semiconductor(SSS)	5,862,409	5,166,385	20,983,314	181,041
Samsung Asia Private(SAPL)	5,528,472	592,320	1,458,176	1,056,956
Samsung Electronica da Amazonia(SEDA)	5,200,799	1,510,972	6,092,245	966,821
Samsung Austin Semiconductor(SAS)	4,940,748	1,293,458	3,586,127	104,747
Samsung India Electronics(SIEL)	4,563,407	2,256,194	8,827,028	753,164
Samsung Display Vietnam(SDV)	3,165,239	3,437,791	5,230,581	(98,102)
Samsung Electronics Europe Logistics(SELS)	2,887,230	2,779,296	13,157,455	36,768
Samsung Suzhou LCD(SSL)	2,499,917	1,376,439	1,494,787	1,091
Thai Samsung Electronics(TSE)	2,079,865	364,518	4,069,078	198,980
Samsung Electronics Slovakia(SESİK)	2,053,467	440,402	3,634,166	115,387
Samsung Electronics Taiwan(SET)	1,857,017	1,540,478	3,533,924	(36,178)
Samsung Electronics HCMC CE Complex(SEHC)	1,814,566	1,572,982	2,010,442	118,091
Samsung Electronics Hungarian(SEH)	1,743,979	633,975	2,441,881	89,712
Samsung Electronics GmbH(SEG)	1,621,827	1,618,305	6,257,480	2,187
Samsung Display Dongguan(SDD)	1,584,504	518,511	5,187,954	199,922
Samsung Electronics (UK)(SEUK)	1,526,879	1,103,579	4,731,464	107,243

라.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1)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 범위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기업명	사유
국내	SMC 20호 신기술투자조합	청산
국내	에스프린팅솔루션	사업양도
미주	Samsung Receivables(SRC)	청산
미주	TowerSec	합병(*1)
미주	Kngine	합병(*2)
미주	PrinterOn	사업양도
미주	PrinterOn America	사업양도
미주	Simpress	사업양도
유럽/CIS	Samsung Electronics Rus(SER)	합병(*3)
유럽/CIS	Samsung Electronics Ukraine(SEU)	청산
유럽/CIS	AMX LLC (Russia)	청산
유럽/CIS	Surfkitchen	청산
유럽/CIS	Martin Professional	청산
유럽/CIS	PrinterOn Europe	사업양도
아시아	I.P.S.G. International Product Solution Group PTY.	청산
아시아	VFX Systems PTY	청산
중국	Samsung Electronics (Shandong) Digital Printing(SSDP)	사업양도
중국	Tianjin Samsung Opto-Electronics(TSOE)	청산
중국	Martin Trading Zhuhai	청산

(*1) 연결회사의 종속기업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은 2017년 5월 종속기업 TowerSec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2) 연결회사의 종속기업 Samsung Research America(SRA)는 2017년 10월 종속기업 Kngine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3) 연결회사의 종속기업 Samsung R&D Institute Rus(SRR)는 2017년 1월 종속기업 Samsung Electronics Rus(SER)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2)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기업명	사유
국내	반도체성장 전문투자형 사모 투자신탁	출자
	하만인터내셔널코리아	인수
	레드벤드소프트웨어코리아	인수
	SMC 37호 신기술투자조합	설립
미주	Kngine	인수
	AMX Holding Corporation	인수
	AMX LLC	인수
	Harman Becker Automotive Systems	인수
	Harman Connected Services Engineering	인수
	Harman Connected Services Holding	인수
	Harman Connected Services	인수
	Harman Connected Services South America	인수
	Harman da Amazonia Industria Electronica e Participacoes	인수
	Harman de Mexico S. de R.L. de C.V.	인수
	Harman do Brasil Industria Electronica e Participacoes.	인수
	Harman Financial Group	인수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Canada	인수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인수
	Harman International Mexico S de RL de CV	인수
	Harman Investment Group, LLC	인수
	Harman KG Holding, LLC	인수
	Harman Professional	인수
	Red Bend Software	인수
	S1NN USA	인수
	Southern Vision Systems	인수
	TowerSec	인수
	Triple Play Integration	인수
Samsung Electronics Home Appliances America(SEHA)	설립	
China Materialia	설립	

지역	기업명	사유
유럽/CIS	AMX LLC (Russia)	인수
	Harman Connected Services OOO	인수
	Harman RUS CIS LLC	인수
	Aditi Technologies Europe	인수
	AKG Acoustics	인수
	AMX (Germany)	인수
	AMX UK	인수
	Duran Audio B.V.	인수
	Duran Audio Iberia Espana	인수
	Endeleo	인수
	Harman Automotive UK	인수
	Harman Becker Automotive Systems (Germany)	인수
	Harman Becker Automotive Systems Italy	인수
	Harman Becker Automotive Systems Manufacturing Kft	인수
	Harman Belgium	인수
	Harman Connected Services AB.	인수
	Harman Connected Services Finland OY	인수
	Harman Connected Services (Germany)	인수
	Harman Connected Services	인수
	Harman Connected Services Poland Sp.zoo	인수
	Harman Connected Services UK	인수
	Harman Consumer Division Nordic A/S	인수
	Harman Consumer Finland OY	인수
	Harman Consumer Nederland B.V.	인수
	Harman Deutschland	인수
	Harman Finance International GP S.a.r.l	인수
	Harman Finance International SCA	인수
	Harman France SNC	인수
	Harman Holding & Co. KG	인수

지역	기업명	사유
유럽/OS	Harman Hungary Financing	인수
	Harman Inc. & Co. KG	인수
	Harman International Estonia OU	인수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UK)	인수
	Harman International Romania SRL	인수
	Harman International s.r.o	인수
	Harman International SNC	인수
	Harman Management	인수
	Harman Professional Kft	인수
	Inspiration Matters	인수
	Knight Image	인수
	Martin Manufacturing (UK)	인수
	Harman Professional Denmark ApS(구 Martin Professional ApS)	인수
	Harman Professional France SAS(구 Martin Professional France)	인수
	Harman Professional Germany GmbH(구 Martin Professional GmbH)	인수
	Martin Professional	인수
	R&D International	인수
	Red Bend Software (UK)	인수
	Red Bend Software SAS	인수
	Samsung Electronics Air Conditioner Europe B.V.(SEACE)	설립
	Studer Professional Audio	인수
	Surfkitchen	인수
	Innoetics E.P.E.	인수
	ARCAM	인수
A&R Cambridge	인수	

지역	기업명	사유
중동 및 아프리카	Broadsense	인수
	Global Symphony Technology Group	인수
	Harman Connected Services Morocco	인수
	Harman Industries Holdings Mauritius	인수
	iOnRoad	인수
	iOnRoad Technologies	인수
	Red Bend	인수
	TowerSec (Israel)	인수
아시아 (중국제외)	AMX Products and Solutions Private	인수
	Harman Connected Services India	인수
	Harman Connected Services Technologies	인수
	Harman International (India) Private	인수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PTY	인수
	Harman International Singapore	인수
	Harman Malaysia Sch. Bhd.	인수
	Harman Professional Singapore Pte.	인수
	I.P.S.G. International Product Solution Group PTY.	인수
	INSP India Software Development Pvt.	인수
	Martin Professional Pte.	인수
	VFX Systems PTY	인수
	Harman Connected Services Japan	인수
	Harman International Japan	인수
	Red Bend Software Japan	인수
	Studer Japan	인수
	Samsung Nepal Services(SNSL)	설립

지역	기업명	사유
중국	Harman (China) Technologies	인수
	Harman (Suzhou) Audio and Infotainment Systems	인수
	Harman Automotive Electronic Systems (Suzhou)	인수
	Harman Commercial (Shanghai)	인수
	Harman Connected Services Taiwan	인수
	Harman Holding	인수
	Harman International (China) Holdings	인수
	Harman Automotive InfoTech (Dalian) (구 Harman Neusoft Automotive Infotech (Dalian))	인수
	Harman Technology (Shenzhen)	인수
	Martin Trading Zhuhai	인수
	Harman Connected Services Solutions (Beijing)	인수
	Harman Connected Services Solutions (Chengdu)	인수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

다음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가.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7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포됐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제정된 해석서에 따르면, 관련 자산, 부채,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또한,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해석서의 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위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결회사가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7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사업모형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113,901,548백만원, 만기보유금융자산 106,751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10,943,555백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113,901,548백만원, 만기보유금융자산 106,751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7년 12월 31일 현재 위 금융자산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 3,305,85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7년 12월 31일 현재 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의 2017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7,637,705백만원이고, 당기 중 매도가능지분상품 관련 미실현평가손실(세전) 3,199백만원이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매도가능지분상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 투자 목적의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자산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부 매도가능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어 당기손익 변동성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없습니다.

(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금융부채 52,705,258백만원 중 525,579백만원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 적용할 경우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만기가 짧고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이 미미하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 (*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종료일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114,673,402백만원(대여금 및 수취채권 114,566,651백만원, 만기보유금융자산 106,751백만원)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3,305,85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손실충당금 665,103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 시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동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동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위험관리활동에 대해 최대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되는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다른 자본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하고,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최초 적용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이 기준서를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 준비를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회계 부서 소속직원과 외부자문사인 회계법인으로 구성되고 필요 시 전산 등 실무 부서의 도움을 받는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결회사의 수익 구조를 분석하여 관련 내부관리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일부 회계처리시스템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제품판매 전략, 영업행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준서 도입에 따른 변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도입 추진 계획과 진행상황을 경영진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Incoterms Group C 조건(무역조건 CIF 등) 따라 다양한 제품 및 상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이후 매도인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당 운송서비스(보험 포함)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연결회사는 Incoterms Group C 조건(무역조건 CIF 등) 관련 계약을 분석한 결과, 통제가 이전된 이후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운송서비스를 재화의 판매와 구분하여 별도의 수행의무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 CE 사업부문

연결회사의 CE 사업부문은 조달청을 통해 수주되는 시스템에어컨 도급공사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설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가치를 높이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연결회사는 계약 조건을 분석한 결과, 시스템에어컨 설치용역의 경우 용역 수행 경과에 따른 결과물을 고객이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 DS 사업부문

연결회사의 DS 사업부문은 고객의 주문에 따라 반도체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기업이 의무를 수행하여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계약 조건을 분석 결과, 대체용도가 없고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는 고객 주문형 반도체 공급계약은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 변동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를 인식하며 해당 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회수할 제품에 대한 기업의 권리를 자산(환불자산)으로 별도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본 조항의 적용을 위해 관련 금액을 환불부채와 환불자산으로 구분표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2017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동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예: 기초자산 \$5,000 이하) 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회계처리와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1)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방법(완전 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아직 그 적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시 2017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 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2)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회사는 리스제공자로서 현재의 리스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더라도 유의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가.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입니다. 연결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나.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자본거래, 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불한 대가의 공정 가치와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액 중 취득한 지분 해당액과의 차이는 자본에 계상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익 또한 자본에 반영됩니다.

다. 종속기업의 처분

연결회사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동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공정가치는 해당 지분이 후속적으로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의 최초 인식시 장부가액이 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전에 계상하고 있던 기타포괄손익의 금액은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를 직접 처분하였을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인식되었던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손익 또는 자본으로 재분류됩니다.

라. 비지배지분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회사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회사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마.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지배력은 없는 모든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내지 50%를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 기업입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바.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외화환산

가.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KRW)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KRW)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 외화거래와 보고기간 종료일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다.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회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결회사의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1)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2)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평균환율이 거래일의 전반적인 누적환율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사치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3) 위 1), 2)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 현재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 금융자산

가. 분류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그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최초 인식시점에서 이러한 금융상품의 분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연결회사는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목적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외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거나, 다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상품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경영진이 처분할 의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나.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 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이자는 금융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배당금은 연결회사의 배당금 수취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기타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라. 금융상품의 제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2.7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연체,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됩니다.

2.8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고자산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정상조업도에 근거한 관련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지며, 유희생산설비원가나 폐기비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 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제품수요 등을 검토하여 과잉,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0 매각예정분류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매각예정분류자산집단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의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으며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연결회사가 추정한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됩니다. 토지는 상각되지 않으며, 자본화차입금이자를 포함한 장기건설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원가는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됩니다.

각 자산별로 연결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대표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표추정내용연수
건물 및 구축물	15, 30 년
기 계 장 치	5 년
기 타	5 년

연결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의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2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3 무형자산

영업권은 취득시점에 취득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사업 등의 순식별가능자산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며 종속기업의 사업취득과 관련된 건은 무형자산으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지분 취득과 관련한 건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 및 특정 상표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원권의 시장가치 하락 등 손상 징후를 발견시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손상을 반영합니다. 특허권, 상표권 및 기타무형자산 등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각 자산별 대표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표추정내용연수
개 발 비	2년
특허권, 상표권 및 기타무형자산	5년 ~ 10년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영업권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5 금융부채

가.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6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2개월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7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공정가치에서 거래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8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연결회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2.19 종업원급여

연결회사는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해당 기금이 현재나 과거 기간의 종업원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결회사는 추가적인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상장되거나 비상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연금보험제도에 의무적으로나 계약에 의해 또는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이 지급된 이후에 연결회사는 더 이상의 미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선급 기여금은 초과 기여금으로 인해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자산)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과소적립액(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0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 측정시 최초인식 금액의 미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연결회사의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2 파생상품

연결회사는 파생상품의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금액은 자본항목으로 이연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재고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한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대상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배당금

배당금은 연결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4 자본금

보통주와 상환의무 없는 우선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 또는 종속기업이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연결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연결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5 수익인식

수익은 주로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판매장려금 및 가격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매와 관련된 우발상황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여 수익금액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판매 계약 등의 각 구성항목이 다수인 경우 각 구성항목의 공정가치는 그 구성항목이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경우의 현행 시장가치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각 구성항목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총계약대가에서 제공하지 않은 구성항목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가액을 근거로 제공한 구성항목의 공정가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 재화의 판매

연결회사는 제품 및 상품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과거에 축적된 경험에 근거하여 판매시점에 과거의 경험에 근거하여 추정한 가격할인 및 반품금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용역의 제공

용역제공거래에 대하여는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률은 총 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누적발생원가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해 인식됩니다.

라.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발생기준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연결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 기준으로 비용 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연결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 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 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7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수익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과 대응될 수 있는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처리하고, 정부보조금 관련 이연수익은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8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29 보고부문

보고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부문별로 공시되고 있습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부문에 배부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30 연결채무제표의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채무제표는 2018년 1월 31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설치 등의 서비스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기준은 연결회사가 발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을 추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익은 장기프로젝트의 초기단계, 프로젝트 수행범위의 변동, 원가의 변동, 공기의 변동 및 고객의 계획변경과 관련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판매보증충당부채

연결회사는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 미래와 현재의 보증의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선의 추정치는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연결회사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을 기초로 다양한 평가기법 및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순확정급여부채(자산)는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순원가(이익)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정은 할인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장부금액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매년 말 우량회사채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할인율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정산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추정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되어야 하는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와 관련된 다른 주요한 가정들은 일부 현재의 시장 상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 영업권의 손상

연결회사는 매년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 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바.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식사항은 2월 28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별도 대차대조표(별도 재무상태표)

별도 재무상태표

제 49 기 :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전자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목	제 49 (당) 기	제 48 (전) 기
자 산		
I. 유 동 자 산	70,155,189	69,981,128
1. 현금및현금성자산	2,763,768	3,778,371
2. 단기금융상품	25,510,064	30,170,656
3. 매출채권	27,881,777	23,514,012
4. 미수금	2,201,402	2,319,782
5. 선급금	1,097,598	814,300
6. 선급비용	2,281,179	2,375,520
7. 재고자산	7,837,144	5,981,634
8. 기타유동자산	582,257	743,163
9. 매각예정분류자산	-	283,690
II. 비 유 동 자 산	128,086,171	104,821,831
1.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973,353	913,989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55,671,759	48,743,079
3. 유형자산	62,816,961	47,228,830
4. 무형자산	2,827,035	2,891,844
5. 장기선급비용	3,031,327	3,507,399
6. 순확정급여자산	811,210	557,091
7. 이연법인세자산	586,161	110,239
8. 기타비유동자산	1,368,365	869,360
자 산 총 계	198,241,360	174,802,959
부 채		
I. 유 동 부 채	44,495,084	34,076,122
1. 매입채무	6,398,629	6,162,650
2. 단기차입금	12,229,701	9,061,167
3. 미지급금	9,598,654	7,635,740

과 목	제 49 (당) 기		제 48 (전) 기	
4. 선수금	214,007		200,445	
5. 예수금	500,740		389,528	
6. 미지급비용	6,657,674		6,284,646	
7. 미지급법인세	6,565,781		2,055,829	
8. 유동성장기부채	5,201		5,854	
9. 총당부채	2,273,688		2,221,717	
10. 기타유동부채	51,009		58,546	
II. 비 유 동 부 채		2,176,501		3,180,075
1. 사채	46,808		58,542	
2. 장기미지급금	1,750,379		2,808,460	
3. 장기총당부채	379,201		312,467	
4. 기타비유동부채	113		606	
부 채 총 계		46,671,585		37,256,197
자 본				
I. 자본금		897,514		897,514
1. 우선주자본금	119,467		119,467	
2. 보통주자본금	778,047		778,047	
II. 주식발행초과금		4,403,893		4,403,893
III. 이익잉여금		150,928,724		140,747,574
IV. 기타자본항목		(4,660,356)		(8,502,219)
자 본 총 계		151,569,775		137,546,762
부채와자본총계		198,241,360		174,802,959

- 별도 손익계산서

별도 손익계산서

제 49 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48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자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9 (당) 기		제 48 (전) 기	
I. 매출액		161,915,007		133,947,204
II. 매출원가		101,399,657		97,290,644
III. 매출총이익		60,515,350		36,656,560
판매비와관리비	25,658,259		23,009,124	
IV. 영업이익		34,857,091		13,647,436
기타수익	2,767,967		2,185,600	
기타비용	1,065,014		1,289,594	
금융수익	4,075,602		5,803,751	
금융비용	4,102,094		5,622,119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6,533,552		14,725,074
법인세비용	7,732,715		3,145,325	
VI. 당기순이익		28,800,837		11,579,749
VII.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단위:원)		208,881		81,602
희석주당이익(단위:원)		208,881		81,602

-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제 49 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48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자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9 (당) 기		제 48 (전) 기	
I. 당기순이익		28,800,837		11,579,749
II. 기타포괄손익		319,724		308,05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349,950		729,634
1. 순확정금융자산 재측정요소	349,950		729,63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30,226)		(421,577)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30,226)		(421,577)	
III. 총포괄이익		29,120,561		11,887,806

- 별도 자본변동표

별도 자본변동표

제 49 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48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자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항목	매각예정분류 기타자본항목	총 계
2016.1.1 (전기초)	897,514	4,403,893	143,629,177	(12,526,126)	23,797	136,428,255
I.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	-	-	11,579,749	-	-	11,579,749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	-	-	(397,780)	(23,797)	(421,577)
3. 순확정급여자산 재측정요소	-	-	-	729,634	-	729,634
II.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1. 배당	-	-	(3,061,361)	-	-	(3,061,361)
2. 자기주식의 취득	-	-	-	(7,707,938)	-	(7,707,938)
3. 자기주식의 소각	-	-	(11,399,991)	11,399,991	-	-
2016.12.31 (전기말)	897,514	4,403,893	140,747,574	(8,502,219)	-	137,546,762
2017.1.1 (당기초)	897,514	4,403,893	140,747,574	(8,502,219)	-	137,546,762
I.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	-	-	28,800,837	-	-	28,800,837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	-	-	(30,226)	-	(30,226)
3. 순확정급여자산 재측정요소	-	-	-	349,950	-	349,950
II.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1. 배당	-	-	(6,747,124)	-	-	(6,747,124)
2. 자기주식의 취득	-	-	-	(8,350,424)	-	(8,350,424)
3. 자기주식의 소각	-	-	(11,872,563)	11,872,563	-	-
2017.12.31 (당기말)	897,514	4,403,893	150,928,724	(4,660,356)	-	151,569,775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49 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48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자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9 (당) 기		제 48 (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14,031,533		38,248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31		30	
2. 분기배당금 당기 - 주당배당금(률) : 21,000원(420%) 전기 - 주당배당금(률) : 1,000원(20%)	(2,896,772)		(141,540)	
3. 자기주식 소각	(11,872,563)		(11,399,991)	
4. 당기순이익	28,800,837		11,579,749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3,812,135
1. 기업합리화적립금	-		3,812,135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14,031,503		3,850,352
1. 기업합리화적립금	3,000,000		-	
2. 배당금 주당배당금(률) 당기 - 보통주 : 21,500원(430%) 우선주 : 21,550원(431%) 전기 - 보통주 : 27,500원(550%) 우선주 : 27,550원(551%)	2,929,530		3,850,352	
3.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8,000,000		-	
4. 시설적립금	101,973		-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0		31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전기 처분확정일: 2017년 3월 24일).

- 별도 현금흐름표

별도 현금흐름표

제 49 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48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자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9 (당) 기	제 48 (전) 기
I. 영업활동 현금흐름	38,906,190	23,984,804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41,350,471	24,901,464
가. 당기순이익	28,800,837	11,579,749
나. 조정	18,012,976	14,910,093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5,463,342)	(1,588,378)
2. 이자의 수취	491,501	622,118
3. 이자의 지급	(265,364)	(208,010)
4. 배당금 수입	1,118,779	903,758
5. 법인세 납부액	(3,789,197)	(2,234,526)
II. 투자활동 현금흐름	(28,118,806)	(14,240,450)
1. 단기금융상품의 순감소(증가)	2,960,592	(1,407,068)
2.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3,010,003
3.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1,700,000	700,000
4.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500,000)	(1,700,000)
5.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98,265	692,547
6.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163,765)	(477,744)
7.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처분	1,438,362	2,416,678
8.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취득	(7,492,843)	(4,648,008)
9. 유형자산의 처분	244,033	335,288
10. 유형자산의 취득	(25,641,229)	(12,161,084)
11. 무형자산의 처분	456	6,357
12. 무형자산의 취득	(843,096)	(1,046,676)
13. 현금의 기타유입	80,419	39,257
III. 재무활동 현금흐름	(11,801,987)	(9,037,006)
1. 단기차입금의 순증가	3,300,611	1,737,871
2. 자기주식의 취득	(8,350,424)	(7,707,938)
3. 사채의 상환	(6,043)	(5,860)
4. 배당금의 지급	(6,746,131)	(3,061,079)
IV.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	8,063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증가(I +II +III +IV)	(1,014,603)	715,411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778,371	3,062,960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763,768	3,778,371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전자주식회사

1. 일반적 사항 :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69년 대한민국에서 설립되어 1975년에 대한민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업은 CE부문, IM부문, DS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E(Consumer Electronics) 부문은 디지털 TV, 모니터,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IM(Information technology & Mobilecommunications) 부문은 휴대폰, 통신시스템, 컴퓨터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S(Device Solutions) 부문은 메모리 반도체, Foundry, System LSI 등의 반도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이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이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가. 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7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제정된 해석서에 따르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또한,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해석서의 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 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위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회사가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7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사업모형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59,778,872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973,353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59,778,872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7년 12월 31일 현재 위 금융자산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 93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7년 12월 31일 현재 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에 적용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2017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972,423백만원이고, 2017 회계연도 중 매도가능지분상품 관련 미실현평가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된 금액은 없습니다.

회사는 매도가능금융상품 중 장기 투자 목적의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자산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없습니다.

(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없습니다.

(3)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 (*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종료일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60,113,455백만원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93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손실충당금 334,583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 시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되는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다른 자본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하고,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최초 적용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이 기준서를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 준비를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회계부서 소속직원과 외부자문사인 회계법인으로 구성되고 필요 시 전산 등 실무 부서의 도움을 받는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사의 수익구조를 분석하여 관련 내부관리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일부 회계처리시스템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제품판매 전략, 영업행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준서 도입에 따른 변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도입 추진 계획과 진행상황을 경영진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Incoterms Group C 조건(무역조건 CIF 등) 따라 다양한 제품 및 상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이후 매도인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당 운송서비스(보험 포함)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Incoterms Group C 조건(무역조건 CIF 등) 관련 계약을 분석한 결과, 통제가 이전된 이후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운송서비스를 재화의 판매와 구분하여 별도의 수행의무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 CE 사업부문

회사의 CE 사업부문은 조달청을 통해 수주되는 시스템에어컨 도급공사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설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가치를 높이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계약 조건을 분석한 결과, 시스템에어컨 설치용역의 경우 용역 수행 경과에 따른 결과물을 고객이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 DS 사업부문

회사의 DS 사업부문은 고객의 주문에 따라 반도체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업 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기업이 의무를 수행하여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계약 조건을 분석 결과, 대체용도가 없고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는 고객 주문형 반도체 공급계약은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 변동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를 인식하며 해당 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회수할 제품에 대한 기업의 권리를 자산(환불자산)으로 별도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본 조항의 적용을 위해 관련 금액을 환불부채와 환불자산으로 구분표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2017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동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회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예: 기초자산 \$5,000 이하) 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회계처리와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1)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방법(완전 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직 그 적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시 2017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 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인 재무적영향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2)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회사는 리스제공자로서 현재의 리스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더라도 유의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회사는 삼성디스플레이 및 Samsung Electronics America 등 270개의 종속기업과 삼성전기 등 41개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원가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가.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회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KRW)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KRW)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 외화거래와 보고기간 종료일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 현재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 금융자산

가. 분류

회사는 금융자산을 그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최초 인식시점에서 이러한 금융상품의 분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회사는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목적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외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거나, 다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상품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경영진이 처분할 의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나.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 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이자는 금융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배당금은 회사의 배당금 수취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기타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되어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라. 금융상품의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2.7.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 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연체,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됩니다.

2.8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고자산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정상조업도에 근거한 관련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지며, 유희생산설비원가나 폐기비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 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제품수요 등을 검토하여 과잉,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0 매각예정분류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매각예정분류자산집단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의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으며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회사가 추정한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됩니다. 토지는 상각되지 않으며, 자본화차입금이자를 포함한 장기건설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원가는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됩니다.

각 자산별로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대표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표추정내용연수
건물 및 구축물	15, 30 년
기 계 장 치	5 년
기 타	5 년

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의 기타 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2 무형자산

이전대가와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 및 특정 상표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원권의 시장가치 하락 등 손상 징후를 발견시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손상을 반영합니다. 특허권, 상표권 및 기타무형자산 등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각 자산별 대표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표추정내용연수
개 발 비	2 년
특허권, 상표권 및 기타무형자산	5 년 ~ 10 년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영업권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4 금융부채

가.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5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2개월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6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공정가치에서 거래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7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회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2.18 종업원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초과적립액이며, 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합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9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 측정시 최초인식 금액의 미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0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회사의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1 파생상품

회사는 파생상품의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금액은 자본항목으로 이연하고 있습니다.

2.22 배당금

배당금은 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자본금

보통주와 상환의무 없는 우선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4 수익인식

수익은 주로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판매장려금 및 가격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 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매와 관련된 우발상황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여 수익금액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판매 계약 등의 각 구성항목이 다수인 경우 각 구성항목의 공정가치는 그 구성항목이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경우의 현행 시장가치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각 구성항목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총계약대가에서 제공하지 않은 구성항목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가액을 근거로 제공한 구성항목의 공정가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 재화의 판매

회사는 제품 및 상품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과거에 축적된 경험에 근거하여 판매시점에 과거의 경험에 근거하여 추정한 가격할인 및 반품금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용역의 제공

용역제공거래에 대하여는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률은 총 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누적발생원가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발생기준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5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 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 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6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수익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과 대응될 수 있는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처리하고, 정부보조금 관련 이연수익은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7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28 재무제표의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18년 1월 31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익인식

회사는 설치 등의 서비스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기준은 회사가 발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을 추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익은 장기프로젝트의 초기단계, 프로젝트 수행범위의 변동, 원가의 변동, 공기의 변동 및 고객의 계획변경과 관련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판매보증충당부채

회사는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 미래와 현재의 보증의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선의 추정치는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회사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을 기초로 다양한 평가기법 및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라. 순확정급여자산

순확정급여자산은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순원가(이익)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정은 할인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순확정급여자산의 장부 금액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회사는 매년 말 우량회사채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할인율은 순확정급여자산의 정산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추정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되어야 하는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순확정급여자산과 관련된 다른 주요한 가정들은 일부 현재의 시장 상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 영업권의 손상

회사는 매년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바. 법인세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식사항은 2월 28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2-1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2-1-1호 의안) 사외이사 김종훈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종훈	1960. 8.13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종훈	Kiswe Mobile 회장	- Yurie Systems 창업자, 회장 & CEO (1992~1998) - Lucent Technologies 사장 (1998~2001) - University of Maryland 전기 및 컴퓨터공학과 교수 겸 기계공학과 교수 (2001~2013) - Alcatel-Lucent 벨 연구소 사장 (2005~2013) - Alcatel-Lucent 최고전략책임자(CSO) (2011~2013) - Kiswe Mobile 공동 창업자 & 회장 (2013~현재)	없음

2-1-2호 의안) 사외이사 김선욱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선욱	1952.12.21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95~현재) - 법제처 처장 (2005~2007)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2007~2009) -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2010~2014) -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ADeKo)이사장 (2011~2014) - 한독포럼 공동대표 (2012~2016) -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동아시아대학원 (GEAS) 초빙교수 (2014~2015)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2017~2017)	없음

2-1-3호 의안) 사외이사 박병국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병국	1959. 4.19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박병국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 AT&T Bell 연구소 연구원 (1990~1992) - Texas Instruments 연구원 (1993~1994) -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1994~현재) - 미국 Stanford University 전기공학과 초빙교수(2002, 2010, 2017)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부학부장 (2006~2008) -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 (2008~2010) -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 정회원 (2014~현재) -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2015~2015)	없음

2-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2-2-1호 의안) 사내이사 이상훈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상훈	1955. 6.15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상훈	삼성전자 前 경영지원실장	- 전략기획실 전략지원팀 (2006~2008) - 사업지원팀장 (2008~2010) -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 (2010~2012) - 경영지원실장 (2012~2017)	없음

2-2-2호 의안) 사내이사 김기남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기남	1958. 4.14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기남	삼성전자 DS 부문장	- 종합기술원장 (2010~2012) -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2012~2013) - 메모리사업부장 (2013~2014) - 반도체총괄 (2014~2017) - DS(Device Solutions) 부문장 (2017~현재)	없음

2-2-3호 의안) 사내이사 김현석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현석	1961. 1.23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현석	삼성전자 CE 부문장	-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개발팀장 (2009~2011) -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품전략팀장 (2011~2011) -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부장 (2011~2017) - CE(Consumer Electronics) 부문장 (2017~현재)	없음

2-2-4호 의안) 사내이사 고동진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고동진	1961. 3.26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고동진	삼성전자 IM 부문장	- 무선사업부 개발관리팀장 (2007~2011) - 무선사업부 기술전략팀장 (2011~2014) - 무선사업부 개발실장 (2014~2015) - 무선사업부부장 (2015~현재) - IM(IT & Mobile Communications) 부문장 (2017~현재)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2-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사 김선욱)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선욱	1952.12.21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95~현재) - 법제처 처장 (2005~2007)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2007~2009) -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2010~2014) -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ADAKO)이사장 (2011~2014) - 한독포럼 공동대표 (2012~2016) -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동아시아대학원 (GEAS) 초빙교수 (2014~2015)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2017~2017)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당 기(50기)	전 기(49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11(6)	9(5)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465억원	550억원

* 당기(50기) 보수 한도 총액 465억 : 일반보수 375억, 장기성과보수 90억
 전기(49기) 보수 한도 총액 550억 : 일반보수 300억, 장기성과보수 250억

□ 정관의 변경

4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발행주식 액면분할

- 보통주와 우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100원으로 분할(50:1)

구 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100원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128,386,494주	6,419,324,700주
	우선주	18,072,580주	903,629,000주
발행할 주식의 수 (우선주)		5억주 (1억주)	250억주 (50억주)

- 주요일정(예상)

- (1) 주주총회 예정일: 2018년 3월 23일
- (2) 구주권 제출기간: 2018년 3월 26일 ~ 2018년 4월 26일
- (3) 매매거래 정지기간: 2018년 4월 25일 ~ 신주 변경상장일 전일
- (4) 명의개서 정지기간: 2018년 4월 27일 ~ 2018년 5월 14일
- (5) 신주권 상장 예정일: 2018년 5월 16일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액면분할을위한 정관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5조 (수권자본)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억주로 한다.	제5조 (수권자본)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백오십억주로 한다.	액면분할 반영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 금액은 일백원으로 한다.	액면분할 반영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②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누적적이며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일억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②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누적적이며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오십억주로 한다.	액면분할 반영

※ 참고사항

당사가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포함한 주요 경영활동 관련 일정을 전략 신제품 출시일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확정하였습니다.
- 또한, 상장회사협의회 정기주주총회 개최 집중 예상일 발표 이전인 2018년 1월 31일의 주식분할 결정 공시에서도 당사 정기주주총회 예정일을 2018년 3월 23일로 이미 발표한 바, 투자자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개최 예정일을 유지하고자 합니다.